

전도와 선교 그리고 종보기도

- 황종연 목사 / 2002. 10. 4 -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에 3천명, 5천명씩이 돌아오는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이 기적이었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실한자들에 의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를 낳는 일도 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의해 복음화된 유럽과 청교도들의 신실한 영향력은 미국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들에 의해 시작된 해안선 선교와 내지 선교 그리고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선교를 위하여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관심사는 땅 끝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복음 거쳐 갔지만 어느새 형식화되어 버린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곳은 버림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저희 온누리 선교 훈련센터 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과 함께 국내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마음을 구하며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땅을 기경하는 농부가 되고, 하나님의 곡식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기도 하고, 추수가 지난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낀 것은 “영혼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인생 80수를 훌쩍 넘긴 어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제야 왔어”라고 하셨다는 말씀에는 모두들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추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

하나를 직접 가야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래서 지금도 소망 없이 죽어 가는 종족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세상에 잃어버린 곳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그래서 나라와 영혼들이 영적 재 갱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도록 중보로 기도하고 그곳에도 이삭을 주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선택 하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